

종합·해설

4·25 재보선 D-50

김홍업 무안·신안 출마할 듯

“민주당 입당 고민 중... 주내 입장 표명”
출마면 범여권 대통합 촉매제 가능성

6일 4·25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대중(DJ)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57)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한화갑 전 대표의 의뢰로 상설로 치러지는 무안·신안 보궐선거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김 전 부이사장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범여권의 대통합에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김 전 부이사장의 측근 인사는 “김 전 부이사장이 최근까지 무소속 출마 결심을 굳혔으나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민주당 입당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출마 여부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범여권에서는 김 전 부이사장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연합공천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라며 범여권 통합에 대한

경계의 눈길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화갑 전 대표, 설 훈 전 의원 등 동료 인사들은 김 전 부이사장의 출마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노갑 전 고문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갑 전 대표는 최근 “정치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밝혔고, 설훈 전 의원은 “김 전 부이사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범여권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일 중도통합신당 모임 대변인도 “민주당이 김 전 부이사장의 연합공천을 제의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서갑원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도 “김 전 부이사장의 연합공천은 여권의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우선 일부 현역의원

들이 김 전 부이사장을 공천하는 것은 민주당은 물론 궁극적으로 DJ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김 전 부이사장의 출마 여부는 DJ의 최종 결정과 범여권의 연합공천 여부에 달린 셈이다.

한편 5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4·25 재보선 선거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무안·신안을 비롯, 광역의원 1곳(나주2), 기초의원 4곳(광주 서구가, 남구가, 여수, 순천마) 등 모두 6곳으로 집계됐다.

무안·신안의 경우 김 전 부이사장을 비롯 지난날 12일 출마 의사를 밝힌 김홍업 한화갑 전 의원 보좌관, 김성철 전 국민은행 부행장, 이재현 전 무안군수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강성만 목포과학대 초빙교수와 배석오(농업인)씨는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한 인사는 아직 없다.

나주2선거구 전남도의원 재선거에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나섰던 김옥기 나주교육진흥재단이사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입장 고수로 분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분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사학법 재개정 총돌 국면

우리당 “민생법안 직권 상정”
한나라, 어제 분회의 보이콧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정국이 강(強) 대 강(強)의 충돌국면으로 급전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일(6일)이 다가온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세로 첨예한 대립의 날을 새워가고 있다.

원내1당인 한나라당은 5일 오후 분회의를 ‘보이콧’하는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우리당을 압박했고, 이에 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다른 정당들과의 공조를 통해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막후 협상을 벌여온 양당 지도부도 이에 ‘공개전’으로 전환해 서로를 향해 경쟁적으로 포문을 열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우리당은 정당이라기 보다는 이해관계 대변인”이라고 공격했고, 우리

당 정세균 의장은 “한나라당이 과연 제1당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소명감이 있는가”고 반격을 가했다.

양당의 강경기류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기 의원총회를 통해 내부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과 오후 개최한 의총에서는 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무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우리당 의총에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화살을 쏘았다. 의원들은 “한나라당은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무책임과 오만에 공분한다” “한나라당은 ‘갈더러당’, ‘배운당’, ‘불효자당’, ‘반인륜당’”이라는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이런 가운데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의 양정일 대변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원칙과 명분도 없이 주야간 밀실거래를 통해 사학법과 주택법을 연계시키더니 이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연합뉴스

靑, 내주 비서실장 교체

후임에 문재인 전 수석 유력

김병준·신계륜씨도 거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르러 내주중 이병만 대통령 비서실장을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후임 비서실장으로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실장은 지난달 초 노 대통령에게 취임 4주년을 맞아 임기말 국정운영 방향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고, 노 대통령은 이후 개헌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가닥이 잡히는 대로 이 실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정세균부총리실에서 “개헌 문제가 가닥이 잡히면 이 실장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실장이 물러나는 시점은 개헌안

발의 시점 이전이 될 것 같고, 3월 중순께라고 보면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오는 7일경 정부 헌법 개정 추진위원에서 개헌안 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공론화를 거쳐 개헌안에 대한 골격이 대충 드러난 시점과 맞물려 이 실장이 물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임 비서실장은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정통하고 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비서실장 후보로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엄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 총리 한덕수씨 유력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7일 물러나는 한명숙 총리 후임으로 한덕수 전 지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 전 부총리는 참여정부 들어 국책연구기관장인 산업연구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 직무대행을 거치는 등 줄곧 내각의 요직을

맡아오며 국정 전반에 정통해 임기 말 총리에게 요구되는 치밀한 정책관리 역량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전 부총리는 원만한 성품과 합리적 임처리가 돋보이는 경제관료 출신이어서 ‘실무·행정형’ 총리 기조에 적임인데다, 국회 인준 통과도 무난할 것이라는 청와대 내부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운찬 카드 파괴력은

경제·교육 전문가... 흥행 일으킬 ‘보증수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운찬 카드’가 대선정국에서 보여줄 파괴력과 출마 공식화 시점이 언제일 지 등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4일 국립대 전현직에서 열린 নিজ 소망관 추모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재촉하지 말아 달라”면서 “생각은 오랫동안 깊게 하고 행동은 빠르고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일 오전에도 “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신문이 너무 앞서나

가는 것 같다”면서도 “(대선 출마) 인생의 행로가 바뀔지도 모르는 일인데 짧게 보지 말고 긴 템포로 가는 게 맞다”며 여유를 남겼다.

정 전 총장의 입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던 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당은 적극 환영했으나, 한나라당은 “출마하면 결국 들러리가 되고 말 것”이라며 반투하고 나섰다.

범여권이 정 전 총장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개혁적 경제전문가이자 대학 현장을 진두지휘해본 교육 전문가라는 점 외에 충청 출신으로서 이른바 ‘서부벨트’ 구축을 완성할 수 있는 인물이란 점 때문이다.

여기에 당 복귀가 임박한 한명숙 총리와 시민사회세력의 지지

받고 있는 문국현 유한길버리 사장, 영남권 주자인 김혁규 의원 등이 가세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공간에서 경선판을 짜면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 전 총장이 대선출마 여부를 최종 결심할 시점은 이르러 4월 중순께, 늦으면 5월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구원편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은 경선을 치르는 6월이 정점이 될 테지만, 이명박·박근혜 대결구도가 너무 오래되고 지루하게 전개되면서 이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범여권은 5, 6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기류를 타게 될 것”이라며 ‘5, 6월 고비설’을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

영어학원 등록한 권노갑

동시통역사 초보 과정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올해 회수(高壽)를 맞은 권노갑(77·사진) 전 민주당 고문이 영어 동시통역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원 강의를 수강해 화제다. 권 전 고문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학영어학원을 방문해 ‘통역대학원 왕초반’ 과정을 수강 신청하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손자별 왕초반과 함께 ‘영어 삼매경’에 빠졌다.

첫 수업에 참여한 50여명의 수강생은 대부분 통역대학원 진학이나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이었다.

수업을 마친 권 전 고문은 “한국은 세계화를 위해 언어를 가장 중시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습득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권 고문은 정치 입문 전에 5년 동안 고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의료안내 - A large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s in Gwangju, listing various hospitals and clinics with their specialties and contact information.